

Hall/Van de Castle System을 이용한 20대 한국 남녀의 꿈 내용 분석

Dream Content Analysis of Koreans in Their Twenties Using Hall/Van de Castle System

장석하 · 이헌정 · 김 린

Sok Ha Chang, Heon-Jeong Lee, Leen Kim

ABSTRACT

Objectives: In the past, latent dreams were emphasized in the psychiatric field, but these days the interest in manifest dreams is increasing as ego psychology develops. Hall and Nordby proposed that there are similarities between manifest dreams and real life. The Hall/Van de Castle System is a method of dream content analysis, which considers both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tic aspects of manifest dreams.

Methods: The dreams of 232 males and females (M : F=127 : 105 ; mean age=21.02.7) were collected through the Most Recent Dream Method.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Hall/Van de Castle System.

Results: Female subjects tended to be more detailed and meticulous in reporting their dreams. The dreams of male subjects showed a higher percentage in self-negativity ($2=6.64$, $df=1$, $p=0.004$), and the dreams of female subjects showed a higher percentage in group character ($2=6.64$, $df=1$, $p=0.0099$), dreamer-involved success ($2=3.12$, $df=1$, $p=0.048$), and good fortune ($2=4.52$, $df=1$, $p=0.034$).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e norm of dream content of Korean college students, and it presents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males and females, and between Korean college students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further studies on dream content analysis. *Sleep Medicine and Psychophysiology* 2004 ; 11(2) : 89-94

Key words: Dream content · Hall/Van de Castle System · Twenties.

서 론

고대로부터 꿈은 인간에게 있어 미래를 예시하는 것이거나 어떤 암시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여겨져 왔다. 정신 의학에서는 Freud가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로서 그 의미를 강조하면서, 꿈이 가지고 있는 잠재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Jung은 Freud를 부정하면서, 꿈이란 전체적인 정신적 평형을 이루기 위한 창조적인 무의식의 표현이라고 하였다(1). Freud가 잠재몽을 강조하였다면 Jung

은 현재몽을 강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로 자아심리학(ego psychology)이 발달하면서 자아의 적응적이고 적극적인 조직화기능이 강조되었다. 꿈에 있어서도 꿈의 적응적인 면이 강조되게 되었으며, 현재몽(manifest dream)의 내용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2). 이로써 꿈의 내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게 되었으며, 꿈의 기록에서 의미있는 규칙성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기울여졌다. 꿈의 내용에 대한 분석에는 일반적인 이해나 직관을 사용하는 질적인 분석방법과 양적인 분석방법이 있는데, 꿈의 내용을 범주화하고 수량화하여 통계적인 분석을 시행하는 양적인 분석방법들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 이들 양적인 분석 방법은 질적인 분석 방법에 비해서 표준집단이나 통제 집단과의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가장 흔히 시행된 꿈 연구 디자인은 실험실에서 피험자에게 수면을 취하게 한 후, 수면단계를 평가하여 REM 수면 또는 NREM 수면 중 각성시켜서 꿈을 보고하게 하는 방법이었으며, 이를 통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암병원 정신과학교실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Anam Hospital,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Leen Kim,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Anam Hospital, 126-1 Anam-dong 5ga, Seongbuk-gu, Seoul 136-705, Korea
Tel: 02) 920-5815, Fax: 02) 927-2836
E-mail: shaegis@korea.ac.kr

꿈 내용 연구는 꿈 이론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3,4). 그러나 검사실에서 시행되는 꿈 연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를 보완하고자 꿈 보고서(dream report) 등의 방법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꿈 보고서는 믿을 만한 타당한 꿈 보고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였다. 특히 꿈 일기(dream journal) 방법은 1, 2주간 일기를 써야 한다는 점에서 피검자의 협조상의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다(5,6).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 “최근 꿈 회상법(Most Recent Dream Method)”이다. 이 방법은 간단하고 시간의 소모가 적기 때문에 피험자의 협조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며, 피검자 협조 정도에 따른 자료 수집상의 왜곡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다.

Hall/Van de Castle의 꿈내용 분석체계는 양적인 분석방법에 질적인 분석방법을 가미한 분석방법이다. 1951년에 Hall과 Van de Castle은 임의의 범주들의 집합으로 시작하여, 이 범주들에 부합되는 요소들의 빈도에 대한 개략적인 아이디어들을 발전시켜, 보다 명백하고 잘 정의된 범주들을 만들었다(7,8).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 체계를 사용하며 발전시켜 왔으며, Domhoff(9)가 이 분석 방법을 보다 체계화 하였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Hall/Van de Castle 방식을 사용한 꿈내용 분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진 바 없다. 본 연구는 최근 꿈 회상법(Most Recent Dream Method)과 Hall/Van de Castle System을 이용하여 한국인, 특히 주요 정신질환의 호발연령인 20대 대학생의 꿈 내용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론

1. 연구대상

대상은 수도권 소재의 대학교 학생으로 만 19세에서 29세까지의 남녀로 하였다(21.0 ± 2.7 세 ; $M \pm SD$) 꿈 내용이 문화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대상군 중에서 외국에서 출생하였거나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연구대상에서 배제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된 피험자는 남성 127명, 여성 105명으로 총 232명이었다.

2. 연구방법

최근 꿈 설문지의 배포와 수거를 위해서 대학교 강의실을 방문하였다. 설문지의 작성에 앞서 대상 집단에 대해서 정해진 설명문을 읽어서 설명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에 있어서 편견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지는 않았다. 채점은 채점자들 간의 변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구자 1인이 모두 채점하였다. 채점을 위해서 Hall/Van de Castle 방식을 습득한 후 www.dreamresearch.net(10)에 게재된 연습 문제로 확인과 연습을 반복하였으며, 모집된 자료 중 100개를 임의 추출하여 채점을 연습한 후 본 채점을 시작하였다.

3. 연구도구

1) 최근 꿈 회상법(Most Recent Dream Method)

꿈 수집의 방법으로는 최근 꿈 회상법(Most Recent Dream Method)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가장 최근에 꾸 꿈 중에서 회상 가능한 내용을 쓰도록 하는 것으로 실험실 꿈 내용 연구방법보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이점이 있으며, 피험자의 협조를 얻기 쉽고 따라서 피험자의 협조 정도에 따른 자료수집상의 왜곡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Domhoff에 의해서 제시된 예(10)를 변안(11)하여 사용하였다. 꿈 보고서의 길이의 측정은 미국에서의 연구에서는 단어수를 통하여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특성에 맞게 음절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 Hall/Van de Castle System

Hall/Van de Castle System은 현재몽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고안된 체계로, 꿈의 내용을 범주화하고 이를 통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각 범주의 빈도와 비율을 계산하는 체계이다. 이 체계는 경험에 의해서 분류된 10개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범주는 다시 여러가지의 지표로 세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등장인물(Character),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활동(Activity), 경쟁(Strive), 불행과 행운(Misfortunes and Good fortunes), 정서(Emotions), 물리적 환경(Physical surroundings), 묘사적 요소(Descriptive Elements), 음식(Food), 과거의 요소(Elements from the Past)의 범주를 통해서 현재몽의 내용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Hall/Van de Castle System은 고려대학교 정신과학교실에서 한국사정에 맞추어 변안한 한국어판(12)을 사용하였다.

4.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교에서 연속변수에 대해서는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비율의 비교에는 χ^2 검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미국 대학생 규준집단과의 비교에는 DreamSAT에서 제공하는 h값을 사용하였다.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통계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Dr-

eamSAT와 R for Windows 2.0.0을 사용하였으며, 결과에 제시한 미국인의 자료는 DreamSAT에서 자동으로 제시된 결과이다.

결 과

전체 328명의 대학생에게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그 중 271명(82%)의 설문지가 수거되었으며, 232명(71%)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수거되지 않은 설문지는 57부(17%)로 전체의, 남성이 29부(남성의 15.3%), 여성이 28부(여성의 20.2%)였다. 수거되었으나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설문지는 꿈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설문지(남성 33부/17.5%, 여성 5부/3.6%)와 연령이 대상범위를 벗어난 설문지(여성 1부/0.7%)였다(표 1). 분석의 대상이 된 보고서의

Table 1. Data collection of dream contents

| | Male | | Female | | χ^2 | p value |
|---------------------|------|----------|--------|----------|----------|---------|
| | N | (%) | N | (%) | | |
| Valuable | 127 | (67.2%) | 105 | (75.5%) | 0.7 | 0.1000 |
| Insignificant | 33 | (17.5%) | 5 | (3.6%) | 15.0 | <0.001 |
| Not returned | 29 | (15.3%) | 28 | (20.2%) | 1.3 | 0.260 |
| Out of age criteria | 0 | (0.0%) | 1 | (0.7%) | 1.4 | 0.240 |
| Total | 189 | (100.0%) | 139 | (100.0%) | | |

Table 2. Number of sentences and syllables of most recent dream report

| | Male subjects (M±SD) | Female subjects (M±SD) | t value | df | p value |
|--------------------|----------------------|------------------------|---------|-----|---------|
| Number of sentence | 5.1± 3.6 | 5.84± 3.5 | 1.6 | 225 | 0.110 |
| Number of syllable | 158.1±93.0 | 188.0 ±108.7 | 2.2 | 326 | 0.027* |

Table 3. Comparison of manifest dream between Korean males and females

| | Male | Female | χ^2 | p value |
|-----------------------------|------|--------|----------|---------|
| Self-negativity percent | 70% | 56% | 8.3 | 0.004* |
| Physical aggression percent | 74% | 63% | 2.3 | 0.130 |
| Misfortune | 26% | 16% | 3.3 | 0.070 |
| Group percent | 24% | 36% | 6.6 | 0.010* |
| Dreamer-Inv. Succ. percent | 27% | 61% | 3.1 | 0.048* |
| Good FORTUNE | 9% | 18% | 4.5 | 0.034* |

Self-Negativity Percent : (Dreamer as Victim+Dreamer-inv. Misfortune+Dreamer-inv. Failure) ÷ (D as Vict.+D-inv. Misfortune+D-inv. Failure+D as Befriended+D-inv. good fortune+D-inv. Success), Physical Aggression Percent : Physical aggressions ÷ All aggressions, Misfortune : Dreams with misfortune ÷ Number of dreams, Group Percent : Group ÷ All characters, Dreamer-Inv. Succ. Percent : Dreamer-involved success ÷ (Dreamer-inv. success+Dreamer-inv. Failure), Good Fortune : Dreams with good fortune ÷ Number of dreams

개수는 남녀간에 차이는 없었으나($\chi^2=0.69$, $p=0.10$), 내용이 부족하여 분석이 불가능한 보고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았다($\chi^2=15.03$, $p=0.0001$).

최근 꿈 보고서에 기입된 음절의 수는 남성이 158.11±93.00개, 여성이 187.99±108.65개로 남성과 여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23$, $df=326$, $p=0.027$). 남성과 여성 피험자들의 꿈 보고서의 정리는 표 2와 같다.

1. 한국인 남성과 여성의 비교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을 표 3에 제시하였다. 물리적 공격 비율(Physical Aggression Percent), 불행(Misfortune)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남성이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2. 한국 남성과 미국 남성과의 비교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을 표 4에 제시하였다. 한국 남성은 꿈속에서 남성 등장인물에 대한 A/C index(모든 등장인물의 수에 대한 공격적 상호작용의 수의 비율)은 0.23, F/C index(모든 등장인물의 수에 대한 우호적 상호작용의 수의 비율)는 0.28였으며, 미국 남성은 각각 0.28과 0.17였다. 여성 등장인물에 대한 A/C index는 0.19, F/C index는 0.54로 미국 남성은 각각 0.17과 0.54였다(표 6).

3. 한국 여성과 미국 여성과의 비교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을 표 5에 제시하였다. 여성은 꿈속에서 남성 등장인물에 대한 A/C index는 0.34, F/C in-

Table 4. Comparisons of manifest dream between Korean and American male college students

| | Korean male | American male | H | p value |
|-----------------------------|-------------|---------------|------|---------|
| Familiarity percent | 61% | 45% | 0.3 | <0.001* |
| Friends percent | 46% | 31% | 0.3 | <0.001* |
| Dead and imaginary percent | 2% | 0% | 0.2 | 0.013* |
| Physical aggression percent | 74% | 50% | 0.5 | <0.001* |
| Male/female percent | 53% | 67% | -0.3 | 0.003* |
| Negative emotions percent | 70% | 80% | -0.2 | 0.014* |
| Misfortune | 26% | 36% | -0.2 | 0.023* |
| Striving | 12% | 27% | -0.4 | <0.001* |

Familiarity Percent : Familiar Characters ÷ (Familiar Characters+Unfamiliar Characters), Friends Percent : Friends ÷ All humans, Dead and Imaginary Percent : (The dead+Imaginary Characters) ÷ All characters, Physical Aggression Percent : Physical aggressions ÷ All aggressions, Male/Female Percent : Males ÷ (Males+Females), Negative Emotions Percent : Negative emotions ÷ All emotions, Misfortune : Dreams with misfortune ÷ Number of dreams, Striving : Dreams with success or failure ÷ Number of dreams

Table 5. Comparison of manifest dream between college female students

| | Korean female | American female | H | p value |
|-----------------------------|---------------|-----------------|------|---------|
| Dead and imaginary percent | 6% | 1% | 0.3 | <0.001* |
| Animal percent | 13% | 4% | 0.3 | <0.001* |
| Physical aggression percent | 63% | 34% | 0.6 | <0.001* |
| Torso/anatomy percent | 48% | 20% | 0.6 | 0.008* |
| Good fortune | 18% | 6% | 0.4 | <0.001* |
| Self-negativity percent | 56% | 66% | -0.2 | 0.047* |
| Negative emotions percent | 71% | 80% | -0.2 | 0.015* |
| Misfortune | 16% | 33% | -0.4 | <0.001* |

Dead and Imaginary Percent : (The dead+Imaginary Characters) ÷ All characters, Animal Percent : Animals ÷ All characters, Physical Aggression Percent : Physical aggressions ÷ All aggressions, Torso/Anatomy Percent : (The torso+Anatomical parts+Sexual organs) ÷ The total number of all body parts, Good Fortune : Dreams with good fortune ÷ Number of dreams, Self-Negativity Percent : (Dreamer as Victim+Dreamer-inv. Misfortune+Dreamer-inv. Failure) ÷ (D as Vict.+D-inv. Misfortune+D-inv. Failure+D as Befriended+D-inv. good fortune+D-inv. Success), Negative Emotions Percent : Negative emotions ÷ All emotions, Misfortune : Dreams with misfortune ÷ Number of dreams

Table 6. Male A/C and F/C index according to dream characters

| Korean and American males | | | |
|---------------------------|-------------------------|--------------------------|----------|
| | Aggressions (A/C index) | Friendliness (F/C index) | |
| With male characters | 0.2 | 0.3 | Korean |
| | 0.3 | 0.2 | American |
| With female characters | 0.2 | 0.5 | Korean |
| | 0.2 | 0.3 | American |

A/C index : All aggressions ÷ All characters, F/C index : All friendliness ÷ All characters

Table 7. Female A/C and F/C index according to dream characters

| Korean and American females | | | |
|-----------------------------|-------------------------|--------------------------|----------|
| | Aggressions (A/C index) | Friendliness (F/C index) | |
| With male characters | 0.3 | 0.3 | Korean |
| | 0.2 | 0.2 | American |
| With female characters | 0.2 | 0.2 | Korean |
| | 0.1 | 0.2 | American |

A/C index : All aggressions ÷ All characters, F/C index : All friendliness ÷ All characters

dex는 0.32였으며, 미국 여성은 각각 0.22과 0.24였다. 여성 등장인물에 대한 A/C index는 0.16, F/C index는 0.24로 미국 여성은 각각 0.14과 0.15였다(표 7).

고 찰

Hall과 Nordby는 사람들이 꾸는 꿈과 그들의 현실 생활

에서 하는 행동, 사고, 신념들 간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13). 즉, 사람들은 실생활에서 활동하는 장소, 활동 등이 주로 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Hall은 꿈 내용 분석에서 극히 일부의 꿈만이 실생활의 경험과 다를 뿐 대체로 꿈을 꾸는 사람의 생활과 일치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13). 따라서 집단간의 꿈의 내용의 상이함은 현실 생활에서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꿈 보고서에 있어서 남녀간 음절 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더 길게 기록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의 정상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미국의 경우 50단어에서 200단어 미만이 남성의 78.9%, 여성의 77.8%로 본 연구에 비해서 길었다. 200단어 이상도 남성 10.7%, 여성 15.0%였다(8).

1. 한국인 남성과 여성의 비교

본 연구에서 한국인 20대 남성과 여성의 꿈 내용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남녀간의 삶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남성이 부정적인 내용을, 여성이 긍정적인 내용의 꿈을 꾸었는데, 이는 실생활에서 20대 남성이 부정적인 경험을, 20대 여성이 긍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다(표 3).

꿈꾼이(dreamer)의 등장인물에 대한 공격성과 우호성을 성별에 따라 비교해 보면, 20대 남성은 동성에 대해서 공격성을, 이성에 대해서 친밀감을 나타내는 데 반해, 20대 여성은 이성에 대해서 공격성과 친밀감 모두를 나타냈다(표 6, 7). 한국의 20대 여성이 남성에 대하여 공격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은 미국과 반대되는 양상으로, 한국 여성들의 남성에 대한 태도로 볼 수 있다.

2. 한국인과 미국인의 비교

전반적으로 한국인 남녀는 미국인에 비해 공격성과 친밀감, 행운 내용의 꿈을 많이 꾸며, 미국인은 한국인에 비해 부정적인 감정을 담은 내용의 꿈을 많이 꾸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여성이 공격적 내용의 꿈이 많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 여성의 남성에 대한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남성의 경우 미국인에 비해서 친밀함과 공격적 내용의 꿈이 많다는 것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미국보다 강렬한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일 수 있다. 반대로 냉정한 경쟁 체제의 미국 사회의 분위기가 미국 20대 남녀로 하여금 경쟁과 이에 따르는 부정적인 감정이 담긴 내용의 꿈을 더 많이 꾸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국인의 꿈에서 사자와 가공인물의 증가 역시 사회문화적 차이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오랜

기간 유교의 영향아래 있었으며, 아직까지 유교적인 영향 아래 있다. 장례문화와 제례문화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은 매우 다르며, 이것이 '사자와 가공인물의 비율'의 차이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기존의 서구 연구와는 달리 20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등장인물의 남성/여성 비율(Male/Female Percent)이 비슷하였다. 서구에서 시행된 꿈의 내용의 성차에 대한 연구(14,15)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지목되는 사실은 남성의 꿈에서는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더 많이 나타나며, 여성의 꿈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다. Strauch와 Meier(15)는 남성들이 다른 남성에 의해서 강화되거나 도전 받는 남성적 세계(masculine world)와 남성으로서의 자기상(male self image)에 더 많이 지향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이 꾸는 꿈에서 남성 등장인물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비해, 여성은 그들의 자기상이 여성 원리(female principle)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중심 사회의 지배 기준(dominant standard of a male society)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성비가 더 균형이 잡혀 있다고 설명한다(15). 즉, 현실적으로 남성이나 여성이 실생활에서 겪게 되는 관념들이 꿈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Vedfelt의 연구에서 우울감과 피로감을 느끼는 남성은 꿈속에서 여성 등장인물을 더 많이 보게 된다(16)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국인 남성의 꿈에서 남성 등장인물 비율의 상대적 저하는 재미있는 현상으로서, 전통적인 농경, 혈연중심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거나, 현재 한국인 대학생 20대 남성이 처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본 연구의 의의는 꿈의 내용을 통하여 한국인 20대 대학생의 정신세계를 남녀간에 비교하였으며, 또한 한국과 미국간의 횡문화적인 비교를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자료를 기반으로 나름의 특징을 가지는 집단을 대상으로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꿈 내용을 비교 분석해 볼 수도 있겠다. 즉, 사고, 정서 및 행동의 변화를 나타내는 정신과적 질환들에 Hall/Van de Castle System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임상 장면에서 여러 정신장애 집단의 정신병리를 연구하는데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는 데, 먼저 임의 표본 추출이 아닌 서울 소재의 대학생들에게서 최근 꿈 보고서를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특징이 한국의 20대 전체의 특성이라기 보다는 지역적인 제약과 대학생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연구를 시행함에 있어 본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정신과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또한 언어적인 차

이 때문에 미국의 자료와의 비교에 있어서 사회문화적인 차이 이외에도 언어의 차이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다양한 연령, 지역, 계층을 포함한 대규모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언어적인 차이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배 경 : 과거에는 정신과 영역에서 잠재몽이 강조되어 왔으나, 오늘날은 자아 심리학의 발달과 더불어서 현재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Hall과 Nordby는 현재몽과 실생활과의 사이에서 유사점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현재몽을 통한 일상생활에서의 정신병리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몽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Hall/Van de Castle System이 있으며, 이는 양적, 질적 분석을 모두 고려한 꿈 내용 분석의 한가지 방법이다.

방 법 : 232명의 남성과 여성(M:F=127:105; mean age=21.0±2.7)의 꿈을 최근 꿈 회상법(the Most Recent Dream Method)를 사용하여서 수집하였다. 수집된 꿈은 Hall/Van de Castle System을 사용하여서 분석되었으며, SAS와 DreamSAT를 사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결 과 :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보고서의 음절수가 더 많았다. 남성과 여성의 비교에서 남성은 부정적 자기비율(self-negativity; $\chi^2=6.64$, $df=1$, $p=0.004$)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집단 비율(Group Percent; $\chi^2=6.64$, $p=0.0099$), dreamer가 연관된 성공 비율(Dreamer-Involved Success Percent; $\chi^2=3.12$, $p=0.048$), 행운(Good Fortune; $\chi^2=4.52$, $p=0.034$)이 높게 나타났다.

결 론 : 본 연구는 한국인 남녀간과 한국인과 미국인 대학생 사이에 꿈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향후 꿈 내용 연구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중심 단어 : 꿈 내용 · Hall/Van de Castle System · 20대.

REFERENCES

1. Jung C. Memories, dreams, reflections. New York, Pantheon Books: 1963.
2. Fosshage L. The psychological function of dreams: a revised psychoanalytic perspectives. *Psychoanalysis and Contemporary Thought* 1983;6:641-669
3. Kramer M. Dream Psychology and the New Biology of Dreaming.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1969. p.377-396
4. Foulkes D. Dreaming: A Cognitive-Psychological Approach.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1985.

5. Buckley J. The Dreams of Young Adults: A Sociological Analysis of 1,133 Dreams of Black and White Students (PhDthesis). Wayne State University;1970.
6. Howard M. Manifest Dream Content of Adolescents (PhDthesis). Iowa State University;1978.
7. Hall C. The meaning of dreams (revised ed.). New York, McGraw-Hill;1966.
8. Hall C, Van de Castle R. The content analysis of dreams.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1966.
9. Domhoff G. Finding meaning in dreams. New York, Plenum Press; 1996.
10. Domhoff G, Schneider A. The quantitative study of dreams. Retrived March 15, 2004 from <http://www.dreamresearch.net/>
11. 김 린 · 이현정. 한국어판 최근 꿈 회상법 양식과 실시요강. 미출판;2000.
12. 김 린 · 이현정 · 박영민 · 강승걸 · 이홍석 · 남 민. 한국어판 Hall/Van de Castle System 실시 요강. 미출판;2000.
13. Hall C, Nordby V. The individual and his dreams. New York, Signet; 1972.
14. Hall C. A ubiquitous sex difference in dreams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4;46:1109-1117
15. Strauch I, Meier B. In search of dream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1996.
16. Vedfelt O. The dimensions of dreams-a comprehensive sourcebook. New York, Fromm International;1999.